

#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함께 쓴다

###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내년 개원 곡성·함양·하동군 등 7개 지자체 보건의료협의체 구성 업무 협력

지리산권으로 묶여진 남원시와 곡성군, 구례군, 장수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이 내년 문을 여는 남원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16일 남원시에 따르면 고죽동 남원의료원 입구 부지에서는 내년 운영을 목표로 '남원시 공공 산후조리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리산권에서 처음 생기는 남원시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리산권역 입산부의 산후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산모실 13개 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원시 보건소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곡성군, 구례군, 장수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등 7개 지자체는 '지리산권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지리산권 최초 공공 산후조리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난 13일 다자간 보건의료협의체를 꾸리고 운영회의에서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 기관은 지리산권에서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남원의료원 산모보건의료센터'와 설립 예정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리산



남원시와 곡성군, 구례군, 장수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보건의료 기관 관계자들이 내년 운영할 예정인 '남원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함께 활용하기 위한 '지리산권 보건의료협의체 운영회의'를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권역 산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참여 기관들은 산후조리원 이용 홍보를 하고 보건 의료 정보를 교류하며 안전한 출산 환경과 출산 진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북특자도 동부권과 지리산권에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간 산후조리원 수준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각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규제 특구' 활용 드론산업 육성 촉진

### 남원시, 실증지원사업·이착륙장 조성 등 사업 추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닌 남원시가 드론 이착륙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규제 특구 활성화에 나선다.

남원시는 운봉읍 덕산리 일원에 지난해 지정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 촉진·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됐다.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비행 관련 사전규제와 전파 관련 사전 평가 등을 면제·간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남원시를 포함 2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남원시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드론 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과 '드론 이착륙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과 함께 하는 드론 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은 산림, 안전재난 분야 등 총 4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와우미래기술'은 소방 드론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드론 기반 화재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아베따'는 장시간 체공 수직이착륙기(VTOL)를 활용한 재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드의 위치를 활용한 고충량 산림 자재 운송, 엘피스의 드론 활용 의약품 콜드체인(저온 유통) 배송 사업이 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봉읍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동장에는 드론 전용 이착륙장을 조성한다.

이곳은 참여 사업자들이 실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상관제 시설과 보관소 등을 갖춘 예정이다.

남원시는 드론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서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실증, 상용화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규제 등을 유예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활용해 드론 공공서비스 조기 상용화와 사업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천 '미로분수' 개봉박두

### 다음달 6일 가동...물놀이 시설·거울 연못 등 '핫플' 예고



다음 달 6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정읍천 '미로분수' 조감도. <정읍시 제공>

정읍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미로분수'가 다음 달 6일부터 가동한다.

정읍시는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4일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읍천 미로분수는 민선 8기 관광 분야 공약사업으로 마련됐다.

바닥분수인 미로분수는 미로 형식으로 꾸민 복합형 음악 분수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거울 연못 등도 갖춘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이달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달 6일부터 음악 분수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

다. 7월13일부터 8월18일까지는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활용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벽천분수' 실시설계 용역 보고도 받았다.

벽천분수는 내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분수는 정읍천 제방을 활용해 물줄기로 이뤄진 은막과 야간 경관 등이 어우러진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천에 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70년 이상 거주 '고창 토박이' 찾습니다

### 28일까지 '뿌리 고창인' 모집...공연 관람료 감면 등 혜택

고창군이 70년 이상 고창을 떠나지 않은 '뿌리 고창인'을 찾아 고창군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고창군은 17일부터 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70년 이상 고창에서 사는 주민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뿌리 고창인' 정책적 지원 우대'는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이다.

평생을 고창에 터 잡고 살아온 지역민에 대한 군

형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마련했다.

70년 이상 태어날 때부터 고창에서 계속 살고 있거나 3대 이상 출생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개인정보 활용제동의서, 주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갖춰 거주지 인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는 서류 등을 검토해 다

음 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8월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9월 뿌리고창인증을 받는다.

뿌리 고창인으로 선정되면 동호·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과 람사르 운곡습지·선운산 유스호스텔 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종량제 봉투 지급, 문화의 전당 공연 관람료 감면 등 혜택도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사랑하고,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가는 데 앞장선 뿌리 고창인을 찾아 행정적·재정적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매달 넷째 금요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 정읍시, 이용 활성화 유도...배달료 지원·세제 혜택 등 제공

정읍시는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달 넷째 주 금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읍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모두 25 곳이다.

지역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보탬이 있는 점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다.

정읍시는 위생·정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

한가격업소를 뽑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인증 표지판을 받고 공공요금 지원 등을 받는다.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받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주방 세제 등 맞춤형 물품을 지원받는다.

정읍시는 업소 한 곳당 최대 30만원의 정읍사랑상품권도 지급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고, 업소에는 맞춤형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이와 함께 매달 넷째 주 금요일은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정해 업소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은 외식 업소와 이·미용업소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단 지정 품목의 지역 평균가격 초과업소이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